음악과 정치

음악의 이해 제8강

음악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 □ 음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특정한 장르의 음악만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일까?
- □ 음악의 정치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음악의 정치성은 음악 텍스트(음악적 요소) 자체에 있 는가?
- 음악의 정치성은 고정적인가?
- □ 음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예를 생각 해보자.

음악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 □ 음악은 정치적인 권력을 드러내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 □국가(國歌)의 경우처럼,국가정체성 및 국가의 공식 이념을 전달하고자 할 때 주요한 매체가 되기도 한다.
 - □ 음악은 정치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 □ 음악은, 때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되거나 폐기되기도 한다.

누에바 깐시온

- □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상황: 불평등, 세습권력, 부패한 정권, 문맹, 교육의 권리 박탈 등 생존권 의 위협,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
- □ 1959년 쿠바에서 체 게바라와 카스트로가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은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투쟁을 시작

- □ 누에바 깐시온 (Nueva canción: new song):
 1950년대 후반부터 <u>칠레</u> 와<u>아르헨티나</u>에서 싹튼 뒤, 70년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광범한 영향
- 력을 행사한 노래운동

 가난한 민중들을 억압하는 제도, 독재정권, 제국주의, 부정,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회운동적 성

격의 노래

- □누에바 깐시온 운동의 선구자: 인디오 혈통 의 음악가들
 - □ 아르헨티나의 아타우알라 유판키
 -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
- □인디오 민속음악 어법 표현
 - □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300여년 찬란한 문명을 꽃피 윘던 잉카조상의 후예 인디오 문화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다는 각성

□ 이후 <u>아데스</u> 악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누에바 깐시온 운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검열의 대상이 됨. 즉 어떤 악기나 음악이 본질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상징(저항의 상징)이 되는 과정을 보여줌.



차랑고



팬파이프



께나

□ 칠레 싱어송라이터이자 극작가 빅토르 하라

□ "기타는 총이고 노래는 총알이다"

- □ 사회비판적 메시지의 노래: 빈민촌, 농민학살 등을 주제로 다루지만 가사는 시적 상징적 가사, 감미로운 멜로디
- □ 1970-73년 전성기.
- □ 1973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범들과 체포된 후 고문 끝에 집단 매장됨.
- "Te recuerdo Amanda," "El Lazo", "Plegaria a un labrador"









Te recuerdo Amanda (아만다를 기억하며)

Te recuerdo Amanda la calle mojada corriendo a la fabrica donde trabajaba Manuel

La sonrisa ancha, la lluvia en el pelo, no importaba nada ibas a encontrarte con el, con el, con el, con el

Son cinco minutos la vida es eterna, en cinco minutos

Suena la sirena, de vuelta al trabajo y tu caminando lo iluminas todo los cinco minutos te hacen florecer

Te recuerdo Amanda la calle mojada corriendo a la fabrica donde trabajaba Manuel La sonrisa ancha la lluvia en el pelo no importaba nada, ibas a encontrarte con el, con el, con el, con el,

Que partió a la sierra que nunca hizo daño, que partió a la sierra y en cinco minutos, quedó destrozado

Suenan las sirenas de vuelta al trabajo muchos no volvieron tampoco Manuel

Te recuerdo Amanda, la calle mojada corriendo a la fábrica, donde trabajaba Manuel. I remember you, Amanda (x2) The wet street running to the factory where Manuel worked I remember you, Amanda The wet street running to the factory where Manuel worked

The wide smile, the rain in your hair, nothing mattered you were going to meet with him, with him, with him, with him

The wide smile, the rain in your hair, nothing mattered you were going to meet with him, with him, with him, with him

They were five minutes life is eternal in five minutes

And he took to the mountains to fight He had never hurt a fly and in five minutes it was all wiped out

The whistle blew to return to work and you walking you lit up everything those five minutes made you blossom The whistle blew to return to work many didn't go back neither did Manuel

I remember you, Amanda The wet street running to the factory where Manuel worked

삶에 감사합니다

내가 두 눈을 떴을 때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하늘의 많은 별,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또렷하게 구별 할 수 있는 빛나는 두 눈 그 많은 것을 나에게 준 삶에 감사합니 다.

귀뚜라미와 카나리아 소리, 망치 소리,

터빈 소리, 개 짖는 소리, 빗소리 소리 이런 소리들을 밤낮으로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 그 많은 것을 나에게 준 삶에 감사합니 다.

도시와 웅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평원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길, 너의 정원을 걸었던 그 피곤한 나의 다리로 행진을 하게 한 그 많은 것을 나에게 준 삶에 감사합니다.

행운과 불행을 구별할 수 있게 한 웃음과 눈물을 나에게 준 삶에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목 우음과 눈물로 나의 노래는 만들어졌고 모든 이들의 노래는 모두 같은 노래이고 모든 이들의 노래는 바로 나의 노래입니 다.

한국 민중가요

- □ 70년대 이후 태동되어,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사회적 현실을 지적하고 민중의 삶을 대변 하는 사회 참여적인 성향의 노래
- □ 주제: 민주화, 노동, 인권, 평화, 통일
- □ 장르적으로는 포크、서정가요、행진곡 형태

- □ 70년대: 대학생들의 서정성과 지식인의 노래를 담은 노래 등장.
 - 통기타와 서정적 가사로 표현
 - □김민기 '아침이슬' 등
- □ 80년대 초반: <u>대학</u>과 <u>종교계</u> 중심으로 민중가 요 노래패가 생김
 - □ 암울한 시대를 반영하듯, 비장한 가사와 비감한 결단을 내포. 투쟁적인 성격의 노래가 다수.
 - □ '전진가',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출전가' 등

- □ 80년대 중반에 크게 성장: 민중가요 노래책과 테 이프가 배포됨
 - □ '그날이 오면', '벗이여 해방이 온다' 같이 서정적인 노래 등장
- □ 80년 대 후반: 민중가요가 대중에게 소개 확산됨 □ '아침이슬', '미인' 등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음 에도 금지곡으로 묶여있던 가요들이 해금되는 등 표현 의 자유가 확장
 - 노동자의 불평등을 형상화하고 노동자 계급을 주체화한 노동가요 등장함
 - □ 대중음악계 가수(정태춘, 김광석 등)도 참여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6-1)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쑥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리라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셋바람에 떨지마라 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작은 연못 (#6-2)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그 몸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 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 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 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 속을 헤메다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 산은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휘익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 없이 몸짓으로 헤메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 것도 살 지 않죠

- _ 민중가요운동의 의의
 - □ 정부 정권에 의거하지 않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정치 적 음악활동
 - □ 상업적 대중가요와 엘리트 음악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 ᅰ 내보의 영대, 저한저 에너지를 시청한
 - 체 내부의 연대, 저항적 에너지를 실천함

 방송, 음반 등 기성매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수용
 - □ 방송, 음반 등 기성매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수용 자의 자발적 의지와 지지에 의해 수용되고 명맥을 유지 해왔다는 점에서 음악 수용의 관습에서도 혁신을 이루 어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44 018.html? fr=mto (한겨레 신문 보도)

베토벤과 _{나폴레옹}

- □ 베토벤이 나폴레옹에 대한 태도의 변화: 자유, 평등의 가치를 내세운 프랑스 혁명의 총아 → 독재적인 황제로 등극
 - ₃번 교향곡 "에로이카 (영웅)"
 - □ "웰링턴의 승리": 영국 사령관이 나폴레옹을 상대로 일격을 가한 것을 음악으로 재현

. 오페라 "피델리오":

- 오스트리아 정부가 의사 소통과 화해를 위한 목적으로, 빈에 주둔하는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오페라 (1805 년 초연)
- 사랑스러운 아내가 젊은 남자로 변장하여 무고하게 투옥된 남편을 폭군의 잔인한 처벌로부터 구출한다는 내용 개인희생,영웅주의,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과
- 등 = 개인되장, 항공무의, 자유되 정의를 정인 무정되 승리 - 베토벤은 당시 프랑스인의 폭정에 대한 항의로 생각; 오페라를 통해 유토피아 구현
- . 이후 오스트리아 정부에게도 오페라 내용이 군주제에 대항하는 반란으로 혼동될 수 있어 위협적인 존재가 됨

- □ '영광의 순간'
 - □메테르니히(오스트리아 정치가)의 환심을 사고자 작곡
 - □ 1814년 나폴레옹 몰아낸 반 나폴레옹 유럽연맹의 정치가들을 위해 초연됨.
 - □메테르니히는 오히려 음악가를 탄압함
 - ■오페라 대본,연주회 프로그램,선율 검열
 - ■예술가들이 모이는 곳에 비밀경찰 파견

레게 (Reggae)

- □ 자메이카에서 탄생한 세계음악
- □ 백인중심의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mark>라스타파<u>리아니즘</u>, 범아프리카주의 표현</mark>
 - □ 밥 말리가 대표적 레게 싱어
 - _ <u>1-2-3</u>,-<u>4-"-"</u> 비트에 강세를 두는 리듬적 특 징
 - □ 전세계의 음악에 영향을 끼침; 청년문화와 결합해 저항적인 메시지 전달

라스타파리아니즘(Rastafarianism)

- □ 1920년대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의 "Back to Africa" 운동에서 영향받음
 - <u>아프리카중심</u>주의
 - 아프리카로 복귀하여 흑인의 자부심을 되찾 기 추구
- □ 1930년대 자메이카 신흥종교로 세계곳 곳의 흑인들에게 어필하게 됨
- □ 상징
 - □ 이디오피아 깃발의 초록, 노랑, 빨간색
 - □ 드레드락 (dreadlocks) 머리스타일
 - □ 간자(ganja)라는 대마초 사용





<mark>밥말리 (Bob Marley)</mark>

- □ 1962년 첫 싱글 Judge Not으로 자메이카에서 히 트
- □ 1975년 Natty Dread 앨범으로 국제적으로 인기 를 얻고, 국제 투어하기도 함
- □ 자메이카에서 라스타파리안을 부정적으로 인식 하지만, 대중들은 밥 말리를 포용함
- □ 세계 흑인과 관련된 국가나 지역에서 독립, 시위 의 현장에서 초대되고 밥 말리 노래가 불림

□ "Get Up, Stand Up" (#6-3)

"You can fool some people sometimes, but you can't fool all t he people all the time. So now we see the light! We gonna sta nd up for our rights!"

□ "Redemption Song" (#6-4)

"Emancipate yourself from mental slavery, none but ourselv es can free our minds."

□ One Love (#6-5)

"One Love! One Heart! Let's get together and feel all right."

자메이카 댄스홀

- □ 자메이카 댄스홀
 - □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톤 빈민가에서 탄생한 자메 이카의 대중음악
 - □가사가 빈민가 생활,폭력,물질주의,마약,노골적 인 섹슈얼리티,동성애에 대한 반감 등의 이슈를 다 로
 - Bass와 타악리듬을 강조하여 비트감이 강함
 - □ 1990년대 초 호모포비아적 가사를 담은 자메이카 댄스홀이 유럽과 북미권에서 인기를 얻게 되고, 더 불어 서구권 동성애인권주의자들의 주목을 받게 됨.

자메이카 호모포비아

- □ 자메이카는 동성애혐오가 가장 심한 카리브해 영토로 인 식되어 있음
 - □ 남성들의 성교 금지법
 - □ 보수적 기독교
 - □ 백인주인의 남성노예에 대한 남색이 굴욕감을 주기 위 한 수단이었다는 인식
- □ 많은 자메이카인들, 특히 하위계층의 흑인 남성들이 동 성애를 유럽인의 지배와 식민주의의 잔재로 인식함
 - □ 지배적인 권력구조에 반대하며, 댄스홀 음악을 향유하 며 과장된 남성성을 표현
 - □ 과장된 남성성은 "식민주의 시절 남성들의 여성화"에 대한 저항하는 것

서구 동성애 인권운동

- 자메이카 댄스홀 음악이 호모포비아와 그와 관련된
 폭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봄
 - 동성애자들을 "burning," "shooting," "killing"한다는 표현이 있음
- □ 영국 동성애 인권주의 운동가 Peter Tatchell
 - □ 많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자메이카인들이 동성애자 살인을 내포하는 가사가 호모포비아를 생성시키는 게 아닐지 모르지 만,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자극하는데 확실히 도움주고 있다 고 주장.
 - □ 호모포비아 노래가 유명한 레게 스타에 의해 불려질 때, 동성 애자들에 대한 반감과 증오감을 강화시킨다. 그것은 또한 젊 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수용할 만한 것으로 믿게 만든다. → 이러한 살인 음악 가사는 호모포비아 증오와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Stop Murder Music 캠페인

- □ 1990년대 이후 호모포비아적 가사가 담긴 댄스홀음악을 부르는 뮤지션들의 공연과 앨범에 대한 보이콧 운동
- □ 수백여 공연이 취소됨; 50억원 수입 손실
- □ 아이튠즈를 비롯하여 방송사와 유통사의 리스트 에서 제외됨
- □ 결국 관여된 자메이카 뮤지션들의 기획자와 캠페 인측이 협상하게 됨 (Reggae Compassionate Act 서약서)



Buju Banton Real Name: Mark Myrie

Date of Birth: 15 July 1973 Amnesty International statement, 19 August 2004, Issued by Susan Lee, Programme Director Americas. International Secretariat, Al London: 'We can confirm that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information from reput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s concerning reports that Ruly Banton was involved in a homophobic attack. These reports take

their home and beaten by a group of armed men, and that the alleged assailants included Buju Banton (Mark Anthony Myrie). The reports further allege that this attack was apparently motivated by hatred of gay men; the victims reported that both before and during the attack the assailants had called the men "battymen" (homosex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further aware that several of the alleged victims were interviewed by a Human

the form of statements that allege that on

June 24 2004, six men were driven from

Rights Watch researcher who was in Jamaica at the time.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received reports that several of the alleged victims made official reports to the Constant Spring police station on 25 June 2004."

Where to buy:

Boom Bye Bye NAME AND ADDRESS OF THE PARTY O

Boom Bye Bye WWW.SPINISON CO.UR/WWW.CIEDIROU.W.SIN/E000001TEIS WARRANDERS OF LAWRENCEDIGGS AS IN BOCCOOTTING

Boom Bye Bye

DANCEHALL DOSSIER

Buju Banton

Buiu Banton - Boom Bye Bye

Boom bye bye

Boom (as in gun sound) goodbye, goodbye [as in we won't be seeing you again, you're dead] Inna batty bwoy head

In a queer's head Rude bwoy no promote no nasty man

Rude boys don't promote no queer men

Dem haffi dead They have to die

Send fi di matic an Send for the automatic [gun] and

Di I lai instead

The Uzi instead

Shoot dem no come if we shot dem Shoot them, don't come if we shoot them

fas in don't come to help them!

Guy come near we If a man comes near me Then his skin must neel

Then his skin must peel

[as in pour acid over him] Burn him up bad like an old tyre wheel

Burn him up badly, like you would burn an old tyre wheel

QUICK FACTS

- Banton is being sought by the Januaican police in connection with a gay-bashing attack in Kingston, Jamaica, on 24 June 2004.
- He performed Boom Bye Bye as recently as Sunday 8 August 2004 at the Smirnoff 98 festival in Neoril, Jamaica.
- Boom Bye Bye incites the execution-style killing of gay and lesbian. people, by shooting them in the head, pouring acid over them or setting them alight, and burning them like car tyre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campaign Web: http://www.stopmurdermusic.org Email: info@stopmurdermusic.org Telephone: +44 (0) 770 843 5917



- □ 서구의 자메이카 댄스홀에 대한 개입
 - □인종차별주의 혹은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비난
 - □ 영국동성애인권주의자들이 비서구권의 동성애운 동에 관여함으로써 영국주류언론으로부터 보다 주 목을 받으며 운동에 대한 힘을 받게 됨.
- □ 정체성 충돌
 - □ 자메이카인들과 서양의 동성애자들이 거대한 권력 구조-각각 서구지배와 이성애주의 --에 저항하는 약 자의 입장이지만, 자메이카 댄스홀이란 음악에서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